

PB-5.

## 서낙동강 둔치도의 습지복원에 따른 수생식물의 회복에 관한 연구

남춘희<sup>1</sup>, 박희순<sup>1\*</sup>, 이기철<sup>2</sup>, 김승환<sup>2</sup>, 윤해순<sup>1</sup>

동아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전공<sup>1</sup>, 동아대학교 공과대학  
도시계획조경학부<sup>2</sup>

서낙동강의 하류에 위치하는 둔치도는 조만강이 서낙동강과 합류하며 형성된 하중도이다. 2003년 둔치도의 논경작지 일부를 민간단체(100만평 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에서 구입하여 문화공원을 조성하는 생태계복원 사업 시행(이하 복원지) 중에 있다. 본 연구는 이 복원과정에서 식물의 성공적인 정착과정을 밝히고, 소규모 천이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규모 복원 습지에서의 효율적인 습지 관리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복원지의 초기작업은 단지 구덩이를 파기만 했으나, 토양의 중자은행과 인근의 논과 수로로부터 유입된 다양한 수생식물이 출현하였다. 본격적인 공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2003년 9월부터 2004년 5월까지 이 지역을 포함한 주변지역에서 출현한 종의 수는 42과 94속 116종이었으며, 귀화종은 8과 12속 13종이었다. 특히 복원지에는 애기부들, 큰고랭이 등의 추수식물과 구와말, 어리연꽃, 노랑어리연꽃, 물옥잠 등이 분포하였으며, 인접한 관개수로에는 가래와 솔잎가래 등의 수생식물을 포함하여 나도겨풀, 쇠털골 등의 습생식물이 분포하였다. 마디꽃과 구와말, 어리연꽃은 서낙동강 본류에는 이미 소멸되어 더 이상 출현하지 않았으나 복원지에 출현하여 농업용수의 수질 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생식물의 복원이 작은 못의 조성으로도 원식생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토지이용으로 점차 사라져가는 수생식물의 보전과 생태학습장으로서 유용한 공간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